

태권도 철학 발전 과정에서 황기의 무도철학의 영향 관계 연구: 유교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정근표* (경희대학교 박사)

요 약

무덕관은 현대 태권도의 모체가 된 5대 기간도장 중의 하나였다. 이후 태권도협회 통합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이 수박도회로 분리되었으나, 실제로 무덕관의 기술과 철학은 다른 기간도장들 이상으로 태권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발전 과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 무덕관의 초대 관장 황기의 무도철학을 분석해 보았다. 이런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황기의 태권도 개념은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무도철학이 태권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둘째, 황기는 태권도 혹은 무도라는 신체활동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목적성을 가진 수단으로서 강조하였다. 셋째, 황기의 무도철학은 유교적인 수기치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유교 혹은 성리학적인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활(活)을 최종 목적으로 강조하는 황기의 무도철학은 현대 태권도철학의 내용과 큰 맥락에서 일치한다.

주제어: 황기의 철학, 태권도철학, 무도철학

* wjdrmsvy@naver.com

I. 서론

태권도에서 태권도 사상 혹은 태권도 철학의 중요성은 결코 축소할 수 없다. 과거 한때 최흥희가 제시했던 태권도의 5대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집대성된 태권도 철학의 체계(Kukkiwon, 2012)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은 항상 강조되어 왔고, 또 발전해 왔다. 이런 태권도 철학의 발전은 한국 무도철학 혹은 무도사상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그 비중도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 철학 혹은 한국 무도철학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빠뜨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철학과 사상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철학과 사상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태권도 자체의 발전과정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국기원(Kukkiwon, 2012)의 태권도 기본교재1의 태권도사 편에서 제시하듯이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전통에서 생겨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비록 김방출(Kim, 2006)이 태권도사의 논쟁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송형석과 이규형(Song & Lee, 2008)이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듯이, 태권도의 전통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태권도의 역사적 발전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태권도 자체가 역사적 발전의 산물인 만큼 태권도 철학과 사상 역시 역사적 산물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 무도철학이나 사상도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태권도 철학 및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여러 관들의 무도철학을 살펴보고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 그 작업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태권도의 발전사에서 광복 직후에 나타나서 대한태권도협회로 통합되기 전에 존재했던 여러 관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무덕관은 다른 관들 못지않게 수련인구도 많고 세가 적지 않았으며, 특히 무덕관 초대 관장이었던 황기는 자신의 무도철학을 분명하게 전개하여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황기의 태권도 철학 혹은 무도 철학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대 태권도 철학 및 한국 무도 철학을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철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 과정으로서 무덕관의 초대 관장이었던 황기의 무도 사상 혹은 태권도 사상을 탐구하였다. 특히 유교 사상의 관점에서 황기의

사상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것은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하여 효(孝)를 중요 덕목으로 강조하는 사고방식 및 한국의 교육열을 유교의 영향에서 찾는 전문가들의 진단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근본 사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기의 사상 역시 그 속에서 유교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런 탐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는 황기의 저작들과 무덕관 관련 사료들, 그리고 무덕관 및 황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조사·분석·논의하였다. 또한, 황기의 주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서 황기의 태권도 사상의 상세하고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요 개념들과 관련해서는, 서론에서 구분했듯이 태권도 철학이나 사상을 한국 무도철학이나 무도사상과 구분할 수도 있으나, 태권도가 한국 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태권도 연구의 관점에서 양자를 동일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김방출과 이창후(Kim & Lee, 2007)가 ‘철학’, ‘사상’, ‘정신’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태권도 철학의 방법론을 분석했듯이 ‘철학’과 ‘사상’ 역시 그 엄밀한 개념은 다를 수 있으나, 태권도 및 무도 연구에서 양자의 구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폭넓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논의하겠다.

II. 선행 연구 검토

황기는 태권도의 실기와 이론 발전의 초석이 되는 여러 저서를 집필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950년 〈화수도(花手道)〉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술 교본이다. 황기는 또한 〈당수도 교본(1958)〉, 〈당수도 보신법(1960)〉, 〈수박도 대감(1970)〉, 〈무도 철학(1993)〉 등도 저술하였다. 하지만 황기의 이러한 무계에 비하여 그와 관련된 연구논문과 저서는 그리 많지 않다(Song & Kim, 2018).

대한태권도협회(KTA, 2015)에서 발간한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는 대태협 및 기타 태권도 행정 단체가 발전해 온 50년의 역사를 언급하였고 이창후(Lee, 2003)의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은 가라테 영향력을 강조한 기존의 태권도사관을 뒤집고 사실에 근거한

전통적 태권도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였지만, 태권도의 여러 분과 관들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허인욱(Heo, 2008)과 최점현(2008) 등이 태권도 현대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무덕관을 위시한 여러 관들의 관계를 그 사상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이 논문에서 연구하는 태권도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국기원(Kukkiwon, 2012)에서 발간한 『태권도 기본교재1: 태권도와 인문과학』의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태권도 철학’ 부분은 그동안의 태권도 철학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후의 태권도 철학과 사상 연구의 한 분기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태권도 철학과 사상의 중심적인 모든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기술과 철학, 사상의 연관 관계도 다루었고 더 나아가서 유교, 불교 등의 사상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기원(Kukkiwon, 2012)의 태권도 철학의 내용의 한 부분을 이루는 태권도 철학은 이창후(Lee, 2000)에서 찾을 수 있다. 태권도 철학에 있어서는 이창후(Lee, 2000)의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가 한글의 창제원리인 삼재 개념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내재적 원리를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논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창후(Lee, 2003)는 삼재와 강유의 개념도 발전시켰는데, 송일훈과 김종일(Song & Kim, 2018)에 따르면, 이창후는 첫째, 삼재와 강유의 개념이 태권도에서 나타나고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 태권도 기법에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둘째, 천지인(삼재)과 강유(군셈과 부드러움)를 중심으로 태권도 철학에 유불선의 사상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태권도 철학이 태권도의 내면의 본질인데 반해 삼재와 강유는 한국 전통문화를 형성한 다양한 전통 동양철학들의 중심 개념이라고 하였다(Song & Kim, 송일훈, 김종일, 2018). 박준석(Park, 2005)이 다룬 한국 무예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이후 태권도 철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에 이창후와 서민학(Lee & Seo, 2007)이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도 및 무예를 이해하기 위한 보편 개념을 연구하였다. 이후 국기원(Kukkiwon, 2012)의 태권도철학은 조성훈(Jo, 2013)의 연구로 발전하였고 태권도와 유불선의 개념 및 철학을 연결시키고 태권도사를 포함한 모든 문헌들을 망라하여 종합하였다.

한편 태권도와 관련하여 유교 사상이 이창후(Lee, 2007)와 정근표(Jung, 2008)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그 초점은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준 성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 내용은 우주본체론으로 출발하는 리기론(理氣論)에서 연결된 인성론(人性論)으로 구성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덕적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성인(聖人)·군자(君子)가

되어 도(道)를 밝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삶을 이해하는 철학이다. 특히 그 수양의 방법론으로서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는 점은 유교의 중요한 특징이며(Lee, 2007) 이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상세한 연구를 이창후(Lee, 2007)와 정근표(Jung, 2008)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 짧은 논문에서는 이 정도로 유교 철학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밖에도 겨루기를 포함한 태권도 실기와 정신과의 관계는 최영렬(Choi, 1989)의 연구에서 발전했으며 태권도와 성리학의 연관성은 정근표(Jung, 2008)에서 상세하게 연구되었다.

Ⅲ. 국기 태권도와 무덕관

1. 황기와 무덕관

황기는 무덕관 초대 관장으로서 1935년 경기상고를 졸업하고 철도국에 취직하였고 1936년 만주 길림 용정시에 위치한 조양천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때 우연히 무술가 양국진을 만나게 되었는데 직장동료인 박효필과 함께 조양천시의 번두리에 있는 그의 집에서 무술을 배우게 되었다. 황기관장의 무술에 대한 관심은 7~8세 때 5월에 마을에서 열린 단오제에서 우연히 접한 전통무예 씨름과 태권을 보고 나서부터라고 증언한다(Heo, 2008).

무덕관은 ‘황기(黃琦, 1914~2002)’가 1945년 11월 9일 서울 용산역 부근의 철도국에서 교통부 소속 운수부 당수도부 창설과 동시에 ‘무덕관’이란 이름으로 서울 용산에 중앙도장을 개관하게 되었다. 이후 1955년도에 철도국의 발전과 확산에 맞물려서 전국에 9개의 지관을 신설하였고, 같은 해 10월 한·중 친선 연무대회를 ‘대한당수도’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대회는 최초의 국제행사로 기록되었다.

황기는 1949년 5월에 『화수도교본』을 저술했으며 이것은 한국 무예계 최초의 저서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이후 1956년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고 이에 심취하여 한국 전통 무예인 수박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명칭을 수박도로 고치고 이 명칭을 이후 계속 고수하였다.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에 걸쳐 〈무예도보통지〉를 꼼꼼하게 필사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수박도협회를 만들었다. 그

기본 교재가 1970년 5월 『수박도(唐手)대감』이다. 이후 1993년 8월 『무도철학』을 포함하여 여러 태권도 서적을 모두 11권 저술했다(Song & Kim, 2018).

황기 관장은 도장 명명 외에도 무술 명칭에 있어서도 초기의 명칭이 어떠한지 불명확한 데 ‘화수도’ - ‘당수도’ - ‘수박도’로 이어지며 1960년 6월 30일 ‘대한수박도회’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그의 무술명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2. 무덕관과 태권도

6.25 전쟁에도 건재하던 무덕관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정권은 사회 자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쉽게 단체들을 재편했는데 무예계 역시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문교부의 유사 단체 통합령이 발동하여 무예단체 간 통합을 요구하였고 황기 관장은 반대했다. 통합 반대의 결과는 무덕관 계열의 도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고 태권도 협회 통합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다가 1965년 3월 16일 통합파와 반대파가 갈리었다. 결국 태권도협회에 통합한 태권도 무덕관과 통합에 반대한 황기의 수박도 무덕관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런 조직의 분리에 즈음하여 1963년 상당한 관세를 잃은 황기 관장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수박도를 전파하였다. 11년 뒤 1974년에는 수박도 미국연맹을 창설하였고 웨스트포인트 미 군사관학교의 무술 정규과목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 후 황기의 무덕관은 국내외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수박도의 보급현황은 미국,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 27개국이 된다.

그러나 이런 협회 및 조직의 분리와는 별도로 무덕관 태권도인들 상당수가 태권도 통합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 태권도사에서 무덕관이 태권도의 기술과 철학 발전사의 한 주축이었다는 점은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례로 허인욱(Heo, 2008), 이창후(Lee, 2007) 등의 어떤 태권도사 기술에서도 무덕관이 현대 태권도의 모체 중 하나에서 배제되는 예가 없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무덕관의 무도철학의 중심인 황기의 사상이 태권도 철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간주하고 연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IV. 황기의 태권도 사상 논의

1. 황기의 태권도 사상 자료 분석

황기를 비롯해서 누구의 사상을 논의하더라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오해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연구할 때 당시의 언어 용법과 후대의 언어 용법이 다르고, 또 같은 용어라도 해석하는 방식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는 타인의 사상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오해가 창의적인 해석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즉 ‘오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료와 그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황기의 태권도 사상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선 황기의 태권도 사상이 나타난 여러 문헌들 중에서 이 논문에서 해석할 대목들을 정확히 발췌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황기의 주요 저작인 『수박도대감』의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 52쪽: 수박도의 수련 목적: 자연의 원칙하에서 화랑도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을 균형 발달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데 있다.
- 57쪽: 우리는 수련 목표가 “활(活)”에 있다. 즉, 남을 공격이나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삶”에 있는 것이다. 적이라 할지라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수박도 수련상 10개 신조

- (1) 나라에 충성(忠誠)
- (2) 부자지간 효정(孝慈)
- (3) 부부의 애정(愛情)
- (4) 형제지간 상협(相協)
- (5) 노소지간 경보(敬保)
- (6) 사제(師弟)간 의리(義理)
- (7) 붕우(朋友)간 유신(有信)
- (8) 살생분별(殺生分別)
- (9) 임전무퇴(臨戰無退)
- (10) 실천필부(實踐必附)

다음은 황기의 『무도철학』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 4쪽: 무덕관 현장

우리는 수련 목표가 “활(活)”에 있다.

즉, 방어나 공격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삶”에 있다. 적이라 할지라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 원칙에 입각하여 활(活)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덕관의 모든 지침을 세우고, 미(美)와 선(線)과 속도(速度)에 치중하여 과학적으로 수련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현장이다.

- 8쪽: 무도철학에 대한 책을 발간하는 근본 취지는 현 무도의 각성과 앞날의 진정한 무도인의 육성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경과 종교와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한 무도인 수박도를 통하여 전 세계 인류의 형제자매화 운동을 통하여 본인의 소망인 전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자유와 평등을 촉진하여 폭력과 무기와 전쟁이 없고 기아와 병마와 공포가 없는 세상을 성취하고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130쪽: 그렇다면 무도란 무엇인가? <중략> 본래의 무도의 본질인 귀중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가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련한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무도를 상품화하여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나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 싸워 이기기 위해 배우는 사람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중략> 진정한 무도는 자기 자신의 인격도야는 물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도와주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31쪽: 무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무는 외적으로는 상대방과 싸우거나 방어를 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상대방과 싸움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武자는 動이요, 생성적(生成的)으로는 양이다. 그리고 道자는 이미 논설한 바와 같이 대자연 즉 우주의 원리원칙의 근원이요 우주의 만상, 만형, 만물의 창조자인 무한 영원한 절대적인 위력과 능력을 보유하는 상징으로서 즉 최초의 음양을 생성한 철학의 모상으로 즉 文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무도는 문과 무를 겸비 즉 겸양한다는 뜻이다.

2. 황기의 태권도 사상 논의

황기의 태권도 사상을 살펴보면 오늘날에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내용도 많이 있고 체계화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다. 하지만 『수박도대감』이 출판되던 1970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시대를 앞서간 저작이자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태권도 및 무도에 대해서 체계적인 ‘철학’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시대였다. 물론 『수박도대감』은 체계적인 무도철학서가 아니라 무덕관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본이었지만, 그 내용에 들어있던 것이 1993년 『무도철학』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수박도대감』의 57쪽에 있는 ‘수련 목표’가 『무도철학』 4쪽에 있는 무덕관 현장의 내용과 같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무도철학』이 출판된 1993년은 시기적으로 김용옥이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를 출판한 직후이고 이창후가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를 출판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김용옥(Kim, 1990)의 저서에는 주로 태권도 역사에 대한 논쟁이 다루어졌으며 태권도 철학에 대해서는 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황기의 저작은 당시로써는 최초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무도철학서 혹은 태권도 철학서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수련 목표가 “활(活)”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태권도 철학의 중요한 한 축이다. 예를 들어 이창후(Lee, 2000)는 “자신과 상대와의 극단적인 생존의 대립 관계를 세상 안에 설정하거나 가정하고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통해 그 대립 관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인간의 조화된 성장과 개선을 지향하는 활동 양식을 “태권도”라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조화된 성장과 개선’이 곧 활(活)이라 할 수 있다. 이송학과 주진만(Lee & Ju, 2002)도 비슷하게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밖으로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으로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무도라고 정의한다. 한편 안용규(An, 1998)는 태권도 정신으로서 평화정신, 애국정신, 예의정신, 충효정신, 부동심, 호연지기, 극기정신, 정신집중, 준법정신이라는 태권도 정신의 9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이 덕목들을 통해서 인격 완성이라는 자아실현을 달성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와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어는 ‘공격과 방어’, ‘심신의 균형 발달’, ‘삶’ 등에 있다. 공격과 방어는 태권도 기술의 핵심이므로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 기술인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황기는 이것을 하나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심신의 균형발달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공격과 방어 활동 역시 목적으로 삼는 셈이다. 즉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균형 발달이라는 목적으로서도 바라보는 것이다. 공격과 방어를 위한 수련은 곧 심신의 균형발달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황기의 무도 철학은 전체적으로 유교 및 성리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유학의 원류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의 하나인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발전된 사상체계인데, 유교의 목표는 도덕적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성인(聖人)·군자(君子)가 되어 도(道)를 밝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다(Hwang, 1995). 이를 위한 유교의 방법론이 곧 학문(學問)인데 황기의 무도철학에서는 이것을 수박도라고 하였다. 또한 유교적 전통에서의 학문이란 자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태권도 정신의 9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이 덕목들을 통해서 인격 완성이라는 자아실현을 달성한다고 주장하는 안용규의 사상과 비슷하다(An, 1998).

하지만 이런 무도 철학에는 무도 혹은 태권도와 사상적 내용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즉 사상은 도덕의 내용인데 무도는 신체활동이므로 서로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영렬(Choi, 1989)의 태권도 철학 연구가 설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도의 육체적인 기술과 정신을 소유하려면 극기와 인내와 백련 천마의 고통이 뒤따르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과 정신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자세를 일상적 생활에서 항상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단순히 정신적인 덕목들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태권도 혹은 태권도 수련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유학에는 여러 유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리학(性理學)은 ‘성명(性命)’과 ‘의리(義理)’를 강조하는 학문으로서 조선 유학의 주류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Hyun, 2003). 성리학의 내용은 리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수양론의 핵심을 보면 황기의 무도철학과 연관성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다.

성리학적 수양론의 핵심은 유교의 목표에서 시작한다. 즉 사람이 학문하는 이유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군자가 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해서 내성외왕(內聖外王) 혹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내성(內聖)과 수기(修己)는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며 외왕(外王)과 치인(治人)은 도를 밝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7). 그 수양의 구체적인 방법이 수기(修己)인데 곧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이며 사람이 되는 학문에 입문하는 방법이다(Yu, 2000).

특히 유가적인 학(學)은 실천적인 학이요, 체득의 학이요, 유학의 목적은 성인(聖人)을 본받고, 나아가서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Lee, 2001). 이와 마찬가지로 황기의 무도 철학 역시 “진정한 무도는 자기 자신의 인격도야는 물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도와주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 내용은 곧 유교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황기 무도철학과 성리학의 일치가 우연은 아닌 것이, 선비도는 우리 전통 사회에서 올바른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의 선비는 그 사회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양심이요, 그 시대의 방향을 투시하는 지성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인격의 모범이요 기준으로 인식되었다(Geum, 2000).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중심 사상에 ‘선비도’라고 부를 수 있는 철학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지도(Kwon & Lee, 2013) 모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발전 과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 무덕관의 초대 관장 황기의 무도철학을 분석해 보았다. 황기는 사회적으로는 빈한하고 문화적으로는 태권도 문화가 매우 척박하던 시대에 태권도 서적을 출판하고 무도철학을 선진적으로 전개한 무도 사상가였다. 비록 그가 태권도 철학에 대해서 직접 서술한 글의 분량이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가 전부일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그의 무도 철학의 탐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황기의 태권도 개념은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무도철학이 태권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었다고 본다.

둘째, 황기는 태권도 혹은 무도라는 신체활동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목적성을 가진 수단으로서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태권도 수련을 보다 심도있게 고찰하도록 주문하였다.

셋째, 황기의 무도철학은 유교적인 수기치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유교 혹은 성리학적인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이 공유한 근본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활(活)을 최종 목적으로 강조하는 황기의 무도철학은 현대 태권도철학의 내용과 큰 맥락에서 일치한다. 이런 점은 작간접적으로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사상적 기조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에서는 비록 황기의 무도철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데에 그쳤으나, 태권도 철학의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황기 이후의 무덕관 무도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청도관, 창무관, 지도관 등의 다른 관의 무도철학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태권도 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n, Y. K. (1998). Study of Taekwondo spirit, A report of KTa.
- Choi, J. H. (2008). *History of 5,000 years on Korea Taekwondo*, Seoul: Sang-A.
- Choi, Y. R. (1989). *Taekwondo Kyorugi*, Seoul: Samhak books.
- Geum, J. T. (2000). *Seonbi and its spirit of Korea*, Seoul: SNUpress.
- Heo, I. U. (2008). *Taekwondo history of Kwan*, Seoul: Korea Haksul Joengbo.
- Hwang, K. (1970). *Subakdo Daegam*, Seoul: Samgwang books.
- Hwang, K. (1993). *Mudo philosophy*, Seoul: Saegiwon books.
- Hwang, J. Y. (1995). *Philosophy of Yuk Gok*, Seoul: Seogwangsa.
- Hyun, S. Y. (2003). *Easy story of Choseon Yuhak*, Seoul: hyuneumsa.
- Jung, G. P. (2008). *Study of Taekwondo identity with approach of Choseon Sengrihak*,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Kyong Hee university.
- Jo, S. H. (2013). *Principle and philosophy of Taekwondo*, Seoul: Anybig.
- Kim, B. C. (2006). Taekwondo history its Issu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7(1), 75-82.
- Kim, B. C. & Lee, C. H. (2007). Taekwondo philosophy criticism and its method, *Korea sports science*, 46(2), 35-45.
- Kim, Y. O. (1990). *Taekwondo philosophy and construction*, Seoul: Tongnamu.
- KTa (2015). *KTa history of 50 years*, Seoul: Anybig
- Kukkiwon (2012). *Taekwondo basic textbook1*, Korea and human science, Seoul: Kukkiwon.
- Kwon, H. J. & Lee, D. G. (2013). Korea spirit of Korea(1): Seobi Do. *Philosophy of motion : Korea sports science*, 2013, 21(3), 171-186.
- Lee, C. H. (2000). *Philosophical principles of Taekwondo*, Seoul: Ji Seung Sa.
- Lee, C. H. (2003). *Samjae and Kangyu of Taekwondo*, Seoul: Sang-A.

- Lee, C. H. (2007). Taekwondo and Choseon Seongri Hak, *Study of Taekwondo(1)*, 2007, Seoul: Sang-A.
- Lee, C. H. (2010). *Taekwondo modern history and its issues*, Seoul: Sang-A.
- Lee, C. H., & Seo, M. H. (2007). General concepts of martial arts, *Study of Taekwondo(1)*, 2007, Seoul: Sang-A.
- Lee, S. H., & Ju, J. M. (2002). *College Taekwondo*, Seoul: Hong Kyong
- Lee, W. J. (2001). *From Gong Ja to Twae Gye*, Seoul: IMbook.
- Park, J. S. (2005). *Korea martial arts theory*, Seoul: Baeksan books.
- Song, H. S., & Lee, K. H. (2008). Taekwondo history issue : New tradition theory and critics on the critics of the position, *Philosophy of motion : Korea sports philosophy*, 16(2), 157-177.
- Song, I. H., & Kim J. I. (2018). Study of Taekwondo, origin; Mudeok kwan(1) - Taekwondo origin Mudeokkwon theory and its disposition, *Korea sports science*, 16(3), 129 ~140
- Yu, M. J. (2000). *History of Twae Gye and his philosophy*, Seoul: Modern Miha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wang Ki's Martial Arts Philosophy on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Philosoph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 of Confucianism

Jung, Geun-Pyo (Kyung Hee University, Ph.D)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Hwang Ki's martial arts philosophy and how it influenced the philosophy of Taekwondo historically. Hwang Ki is the first master of Moo Duk Kwan, which was one of the important Kwan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Hwang Ki thought the concept of Taekwondo includes its philosophy which gives spiritual values. (2) He believed the physical activity of Taekwondo is not only a means but also a kind of goal that we should pursue. (3) His philosophy had the value system of Confucianism in that one ought to train himself first and then devote himself to the prosperity of the world. (4) His philosophy is similar to the modern philosophy of Taekwondo in that their final goal is helping others.

Keywords: Hwang Ki's philosophy, Taekwondo philosophy, Martial arts philosophy